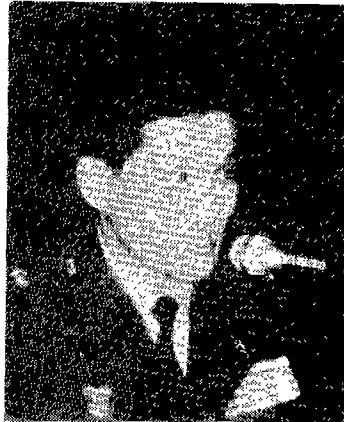


서울에어쇼 개최 의의와 방향

공군본부 전투발전단 단장 이한호

현재 한국 공군은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통일이 후에 늘어날 작전영역 확대에 따른 효율적 대공방어 임무 수행을 위해, 현용 전력구조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전략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 장기전략에 의하면, 공군은 21세기 초에 인공위성을 비롯, 합동감시 및 표적공격 레이다 체계를 이용한 정보수집 체계를 갖추고, 지상 및 공중레이다와 전술 정찰기를 이용하여 조기경보 및 통제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고성능 전투기와 특수기, 전역미사일 방어체계(TMD)를 포함한 강력한 방공망, 그리고 소수의 정예화된 장거리 타격 전력과 지원전력을 동시에 갖추으로써 자주적 억제력과 작전수행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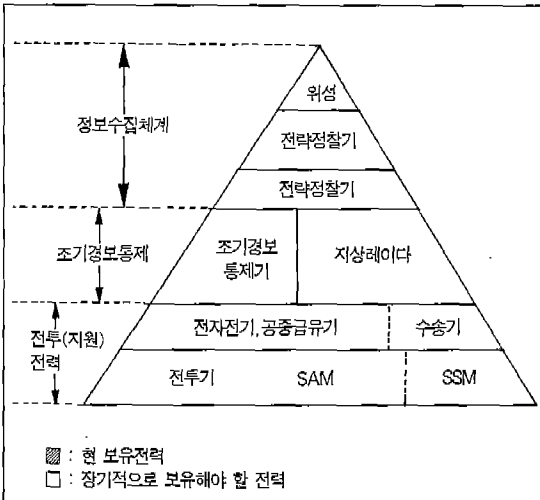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공군의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항공 및 전자산업의 혁명적 발전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처럼 공군의 전력증강과 국내 항공산업 발전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공군의 선도적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군의 장기발전 계획과 장차 국가 안보에 미치는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공군이 국내 최대 수요자로서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군의 소요를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몇가지 사실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 첫번째 문제는 국내에서 연구개발 또는 공동생산 되는 항공무기체계는 외국에서 수입해 온 항공무기체계에 비해 획득가격이 훨씬 비싸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공동 생산하는 KFP의 경우 공군은 약 20~25%의 추가 획득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훈련기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추가 획득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최대의 전투력을 창출해야 하는 군의 입장에서는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비용 지출이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연구개발 산업의 특성이 현재 군의 예산 집행 체제나 일반적 인식에 잘 부합되지 않음을 들 수 있다.



한국 공군의 현 전력 구조 및 장기보유 전력

연구개발 사업은 그 결과에 대한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 반면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실패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무기체계의 성능 및 신뢰성, 획득시기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연구개발 사업은 관련기관 간의 견해차와 책임 공방으로 인한 마찰이 잦았던 것이 사실이다.

셋째, 항공우주산업과 군사력 건설 관계를 단순한 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도 공군 전력 정비비중 KFP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KTX-2사업은 개발비 및 획득비가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일 사업에 투입되는 이와 같이 엄청난 비용은 공군의 장기발전 계획을 분야별로 균형있게 추진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공군의 전투력을 극대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미 외국에서 실용화된 무기체계를 직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제발전과 기술 축적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자주적 안보역량을 이룩할 수 있다는 데에 공군의 군사력 건설과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KTX-2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향후 「국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재정적·제도적으로 업체와 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계열별로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정·통제 및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업체들은 소요군이 국내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소극적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소요군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첨단기술을 축적하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계열별 전문화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도 국가경쟁력과 기술력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내 연구개발 및 생산

에 대한 각종 소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비용의 증가, 획득시기의 지연, 성능 및 신뢰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업체와 소요군간의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산업체, 소요 군의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군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1996년도부터는 이제까지 공군주관으로 실시해 오던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및 산업전시회」에 시범비행 및 곡예비행을 추가하여 국제규모의 「Seoul Air Show '96」을 개최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 중에 있다.

공군은 「Seoul Air Show '96」을 통하여 항공우주 과학분야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 학 민 군이 한자리에 모여 각종 행사를 통하여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에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개최 의의에 부합되는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국내의 군용 항공기 및 세계 유수의 곡예비행팀을 초청하여 시범비행 및 곡예비행을 실시하고, 최첨단 항공기를 비롯하여 항공관련 제품을 총망라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외 항공우주산업제품 전시회를 개최하며, 항공우주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항공우주 심포지엄 및 기술 시장을 개최한다.

또한 국민적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계획중에 있다. 이와 같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공군은 물론 본 행사의 주관부서로 선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를 비롯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체들의 부단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측의 유관기관인 통상산업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